

인천 공공 통합돌봄 플랫폼^(가칭)인천으로) 구축

- ❖ 초고령화와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돌봄공백을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

□ 제안 배경

- (수요적 측면) 국민의 사회에 대한 돌봄수요의 증가
 - 저출산, 인구감소, 초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가족돌봄은 한계가 있으며 돌봄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등 돌봄수요 증가
 - 노인·장애인 돌봄이슈는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함
 - ※ 간병살인, 발달장애아 부모의 동반자살 시도 등
 - 돌봄가족의 생계형 아르바이트, 병원방문, 경조사, 여행, 휴식 등으로 일정기간 대체자가 필요한 경우 돌봄공백을 지원해 줄 돌봄서비스가 필요함
 - 노인돌봄, 아동돌봄, 장애인돌봄 등의 서비스가 있지만 초기에 신청절차가 까다롭고, 돌보미가 지정되기까지 대기해야 하는 등 시간 소요로 단기간·긴급 시 대체할 수 있는 돌봄인력을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
- (공급적 측면) 돌봄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비활동 인구 활용
 - 요양보호사, 보육교사,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수에 비해 실제 활동 인구는 적은 수에 불과
 - 예)요양보호사의 자격증 취득자 수는 253만명인데 요양보호사 종사자는 61만명으로 활동율은 24%에 불과함('23년 2월 기준)
 - 자격증 취득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, 자격증 소지 인력이 사회에 활용되지 못하고 자격증 양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 초래
- 공공 통합돌봄 플랫폼 마련
 - 돌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시장 개척
 - 돌봄인력 구인·구직의 포털이 아닌 공공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(전국 최초)
 - ※ (유사시설) 재가복지센터,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가 있으나 기능이 다름

□ 추진 방안

- 인천 공공 통합돌봄 플랫폼(^{가칭}인천으로) 구축
 - 돌봄이 필요한 대상별, 계층을 세분화한 플랫폼 구축
 - 노인, 아동, 장애인의 시급성의 중·단기 돌봄 연계
 - 중고장터 플랫폼 모델 기반의 수요자·공급자 간 소통 활성화 (채팅, 쪽지 기능 활성화)
 - 돌봄대상자와 돌봄수행자 1:1 매칭 커뮤니티
- 시 산하 센터를 활용한 인력 품질관리
 - 비활동 자격증 소지자의 인력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시 산하기관을 활용하여 돌봄 전문교육, 보수교육 실시, 주기적 인력관리를 운영하여 신뢰성 있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
 - 예시) (노인) 요양보호사 :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또는 노인맞춤돌봄광역지원센터
 - (아동) 보육교사 :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
 - (장애인) 발달장애인 :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
- 플랫폼 기반 인력등록 관리
 - 예비 돌보미가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하면 센터를 통해 자격증, 경력 등의 심사 및 승인으로 돌봄인력풀(pool) 등록 및 관리 됨
 - 등록자의 보수교육, 소양교육, 경력관리를 통해 공적으로 보증된 인력 지원으로 수요자로 하여금 신뢰감 조성
 - 돌봄 인력의 구직에 대한 선택(기간, 시간, 클라이언트 등)의 범위를 넓혀 업무 참여율과 유연성을 높게 함
- 플랫폼 이용자 만족도 실시
 - 수요자 만족도(매너온도), 공급자 만족도(친절온도)를 평가하여 돌보미와 클라이언트 매칭 시 공개된 만족도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
- 전자페이(pay) 결제방식 지원
 - 사용자 부담원칙을 기본으로 하되, 긴급복지대상과 사회취약계층은 포인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
 - 수요와 공급 간 결제 사고와 오류를 방지하고 상호 신뢰감 있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

□ 사업효과

- 플랫폼 구축으로 다수의 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효과 극대화
 - 백화점식으로 많은 돌봄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음
 - 돌봄의 수요자(돌봄욕구)와 공급자(경제활동)와의 상호 욕구 충족
 - (수요적측면) 돌봄공백에서 오는 심리적부담 완화, 돌봄가족의 충전으로 학대, 폭력, 방임 예방, 돌봄을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의 몫으로 공유하는 인식 전환
 - (공급적측면) 자격증 소지자의 경제활동으로 유입시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인구 증가
 - 전국 최초 공공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선도 모델
 - 통합돌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인천형 통합돌봄모델 제시
 - AI 및 응급안전돌봄서비스* 기반이 아닌 MAN-TO-MAN(일대일 혹은 사람 대 사람)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 → 사회적 약자의 정서 지원, 공감·감성을 지원하여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
 - 공공형 관리로 신뢰와 품질만족도 보증
 - 센터가 관리하는 인력 제공으로 돌봄안심도 증가
 - 초기비용과 관리비용이 공적으로 투입되므로 상업화의 부작용 방지
 - 돌봄에 대한 통계확보, 재원지원으로 정책적 관리 가능
 - 다가오는 초고령화, 인구감소시대에 대처하는 새로운 대안 마련
 - 미래 인구변화에 따라 돌봄의 대상은 가족 혹은 개인이 돌봐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돌봐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불안한 노후와 미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임
(돌봄을 '비용의 문제'가 아닌 '돌봄의 주체'의 문제로 보아야 함)
- *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가정에 화재,가스,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
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